

BE- NURSE TIMES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소개 ♥

13기 학생기자 김민송

〈 교육목적 〉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 회복, 질병예방,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술,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

다학제적인 지식을 응용하여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인구집단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 실무역량을 발휘한다.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대상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팀과 협업능력을 함양한다.
기독교적 인성을 갖추고 간호전문리더십을 발휘한다.
최신보건의료기술 및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한다

〈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

간호학문과 다양한 학문지식을 응용한다.
임상추론을 통해 간호상황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한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구집단 건강을 관리한다.
법과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안전과 질 향상 원리를 적용한다.
건강증진과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팀과 협력한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리더십을 개발한다.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

♡간호학과 동아리 소개♡

13기 학생기자 김민송

B.Nurse TIMES <지도교수 : 김현정 교수>

Baekseok Nurse Times 혹은 Be Nurse Times라는 뜻으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간호학과 신문 동아리다. 2012년 가을, 창간호를 발간한 후 매 학기 1부씩 1년에 2번 신문을 발간하여 학과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또한 신문 발간 외에도 선후배 친목 도모, 의료봉사 및 농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대외 활동을 한다.

예뻐간 <지도교수 : 전미순 교수>

간호학과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예뻐간은 예수님을 닮은 간호사가 되길 원하는 학생들이 간호학과와 복음화를 목적으로 매주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동아리다.

HEALING <지도교수 : 박선영 교수>

간호는 과학이며 예술이라는 로저스의 말처럼, 예술적 부분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카타르시스 시킬만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와 최초이자 최상의 동아리 힐링 오케스트라이다. 힐링은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자유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함께 봉사도 하고 나누는 동아리다. 신년 대학 예배 특송, 나 이팅게일 선사식 축주 연주, 병원 연주 봉사 등 뜻깊은 일에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다.

TOP <지도교수 : 임미림 교수>

토익 스테디 동아리. 함께 모여 토익에 대한 심층 스테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위한 영어 공부에 대한 정보도 나눈다. 영어 공부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간호학과 교우들이 참가한다.

선한 이웃 <지도교수 : 백성희 교수>

'선한 이웃'은 돌봄이 필요한 시설과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를 행하는 동아리로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너심 홈 노블시니어스'라는 노인 요양원으로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혹은 금요일에 영양 보조, 연극 활동, 원예요법, 음악치료, 화상 치료, 놀이치료 등의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활동하고 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

BNVP(Baekseok Nurse Volunteering Program <지도교수 : 안영미 교수>

사단법인 선한 의료 포럼, 대결사회복지재단과 MOU를 맺고, 매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다문화권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월과 8월에는 필리핀에서의 해외 의료봉사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아리다.

엔돌핀 <지도교수 : 임소연 교수>

엔돌핀 동아리는 1~4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스포츠 동아리이다. 본 동아리는 다양한 스포츠의 테크닉 훈련을 통해 신체 내 엔돌핀 생성을 증가시켜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인 활동을 가져 체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엘카나 합창단 <지도교수 : 백성희 교수>

엘카나(Eikanah)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간호학과 내 합창 동아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화과 균형을 통해 여러 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한다. 2013년 가을 창단되어 교내 행사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간호 정보 통계 연구회(NISR, Nursing Informatics and Statistics Research group) <지도교수 : 김지현 교수>

정보화 시대에 임상 및 보건 영역의 간호/의료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간호정보에 대한 기초개념을 학습하고, 간호 앱 개발, 의료 관련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마케팅, 다양한 통계 분야를 연구하여 임상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Dreaming <지도교수 : 김지현 교수>

매 학기 서울 시립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여 뇌성마비 등 중증 장애 아동 간호 봉사를 실천하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비전을 세운다.

SHARE <지도교수 : 임미림 교수>

"나눔"을 삶의 화두로 체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간호학 전공 원서, 저널 등을 함께 스테디하며, 일주일에 한번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간호활동, 목욕서비스, 건강상담 및 기초건강 상태 체크,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 센터의 치매 등 특별한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건강교육,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행하는봉사 동아리다.

VERITAS(진리) <지도교수 : 윤미선 교수>

VERITAS 동아리는 간호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이다. 매년 학술제를 개최하고 연간 학술지 Journal of Baekseok Nursing을 발간한다.

BU-SUN(BU-Sunday Unworned Nursing)<지도교수 : 전미순 교수>

일요일에도 지지치 않는 간호라는 의미로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료봉사 동아리이다. 특히 봉사의 수혜자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이라는 점에서 나눔의 의미가 더욱 크다. 봉사를 통하여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할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팀워크를 배우는 동아리이다.

BN-Job Go <지도교수 : 김희정 교수>

실전 취업 준비 동아리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인적성 검사에 대비한 그룹 스터디와 면접 준비를 실시하여 선호하는 병원 취업 준비를 함께하는 동아리이다.

니하오 <지도교수 : 김희정 교수>

중국어 어학 동아리로 중국어 및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기본 회화 및 실무 간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외국어를 함께 공부하여 외국인 환자들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초 외국어 스터디 동아리이다.

<학생회장단 인터뷰>

13기 학생기자 박하윤



학생회장 - 백지환-

1. 자기소개와 당선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4년도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제 4대 학생회 '위로' 학생회장 22학번 백지환입니다. 먼저 저희를 믿고 투표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학과 학우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번 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3년도 제3대 학생회 Re:born에서 1년간 학생회 임원 활동을 하면서 1년의 시간은 학우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 임원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작년에 이어 발전된 다양한 행사, 그리고 복지 개선을 통해 학생회장의 자리에서 학우분들을 위해 좀 더 발전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3.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우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큰 목표이며 이를 실천 하기 위해 학우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우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학우분들의 학교생활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희 학생회는 올해 4대로 타 학부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학생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숨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이겨내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들은 학생회를 위한 것이 아닌 간호학과 학우분들을 위해 임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생회에서 진행 되는 행사들은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의 활동에 관심을 두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사 진행에 있어 부족한 점이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간호학과 4대 학생회 '위로'는 학우분들 모두 위로 성장을 기원하는 뜻과 힘든 학업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 드린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잊지 않고 학우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기소개와 당선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제4대 학생회 '위로' 부학생회장 22학번 김민송이라고 합니다. 먼저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저희를 믿고 투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과를 대표해서 있는 자리인 만큼 실수 없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학생회장과 함께 부학생회장의 자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신중한 선택과 결정으로 간호학과 학우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2. 이번 부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22년을 시작으로 2년 동안 간호학과 학생회 복지국 차장,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우분들의 복지를 더욱 신경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자리를 지켜보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학우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봉사정신, 학생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교수님과 학우분들의 소통 창구가 되어 학우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부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부학생회장 -김민송-

3.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하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소통 활성화, 각종 이벤트 수요조사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열람실 편의성 증대, 학회실 프린트 무료 사용, 전 학년 수강신청 상담소를 상시 운영하는 등 학과 복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학우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학우분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서툰 점이 있더라도 학우분들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석대학교

제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13기 학생 기자 양수정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백석대학교 백석홀 소강당에서 '제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진행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학도들이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내용을 맹세하는 선서로, 근대 간호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그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선서식이다. 선서식은 대개 간호학과 학생들이 2년간 기초적인 간호학문을 공부한 뒤 임상실습에 나가기 전에 거행되며, 학생들이 가운을 입고 촛불을 든 채 선서문을 낭독하며 진행된다.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와 대표적인 연례행사인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는 다양한 귀빈들과 1학년 후배들,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여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간 2학년 간호학도들을 격려하고 축하한다. 이날 합창단 '엘카나'가 부른 따뜻하고 멋있는 공연은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선서식을 마치고 나서는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열려 학부모님들에게 간호학과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규림입니다.

2. 올해의 나이팅게일이 된 소감

간호학과생에게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나이팅게일로 선서식을 보내며 제게는 더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생회 분들, 선후배님들, 교수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학년 학우분들, 축하드립니다!

3. 나이팅게일 선서식 중 기억에 남은 순간

단상에 나가 나이팅게일 선서를 외치던 순간이 아날까 싶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사명감이 피어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닌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던 와중,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4. 앞으로의 다짐 및 꿈

저는 임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앞으로 마주할 많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살아가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과의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선서식에서의 깊은 감동을 항상 되새기며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떳떳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및 응원

먼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더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믿어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 스스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날 고난과 역경도 꼭 이겨내셔서 빛나는 선후배 간호사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생으로서의 3년과 더 먼 미래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간호학과 취업 돌보기

- 졸업생 키워드 인터뷰 -

14기 학생기자 김서영



4학년 학우 홍승경

취업 준비 전

취업은 아직 어리기만 한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취업은 장기전입니다. 실제 서류 전형 발표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린 병원도 있습니다. 취업 초반에 수차례 탈락했다고 해서 절대 자신을 폄하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며 넘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학점

4-1 총점은 4.0이었습니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 총점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2학년까지는 학점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니다. 실제 취업 서류 제출 시 4-1까지 총 학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예비 4학년 분들은 적어도 4-1까지 학업에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3학년 실습과목은 절대평가이므로 함께하는 동기들과 **경쟁보단 협력**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니다.

토익

최근 3년간의 취업 스펙을 분석해 본다면 토익은 무조건 **고교익선**입니니다. 실제로 학점이 낮은 쪽에 속하더라도 높은 토익 점수와 완성도 높은 자소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니다. 토익 이외에도 토스, 텡스 등 다른 어학자격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작년 공고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니다.

기타(동아리, 봉사, 대외활동, 교내활동, 공모전 등)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이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얻었는지**, 사소한 일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내는지가 관건입니니다. 예비 4학년 학우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메모장에 리스트를 작성하여 흔히 말하는 '**글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니다.

자소서

취업 공고가 나기 전, 본인만의 완벽한 자소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질문을 토대로 자소서를 만들어야 하나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니다.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자소서 질문들은 비교적 심플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지원하더라도 변형이 쉬워 배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니다. 추가로 가고자 하는 **병원의 비전, 미션, 인재상**에 맞추어 글감을 채택한 뒤 작성하신다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니다.

면접

면접 준비는 크게 인성면접과 직무면접으로 나뉩니다. 인성면접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인성기출 예상집을 구매하여 활용하였고, 직무면접은 홍지문 초록이를 활용하여 준비했습니다. 또한, 실제 면접장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서류 합격 인원끼리 스터디를 구성하여 **모의면접**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정, 말투, 속도 등을 피드백 받으며 부족한 점을 하나둘씩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니다.

학교 생활 TIP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니다. 힘든 상황에 서로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때론 따끔하게 혼내주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동기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 준비 TIP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병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특방이기에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니다. 실제 재직자의 Q&A, 역대 면접 기출 질문, 최종 합격자들의 스펙, 면접 관련 정보 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니다.

♥ 후배들의 졸업 축하 메시지 ♥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보람찬 마무리와
희망찬 새 시작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모습 본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한 이웃 소개 & 우수 동아리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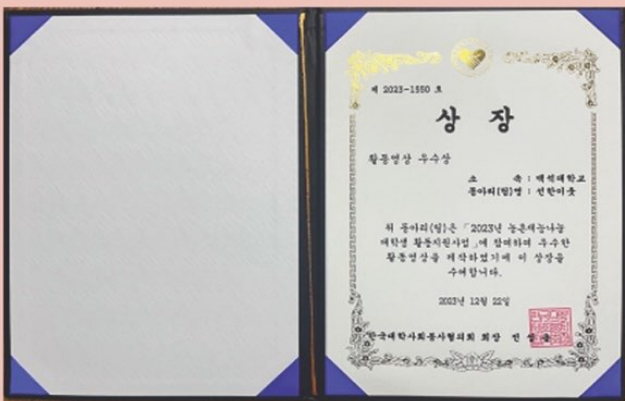
13기 학생기자 박희원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선한 이웃'은 지역사회 노인 대상 봉사 동아리로 노인 요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영양 보조, 연극 활동, 원예 요법, 음악치료, 회상 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선한 이웃을 통해 봉사자는 간호술기 역량을 개발하고 리더십 및 팀워크를

배양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질병 예방, 정기적 건강관리 등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의료 인프라 접근 한계 중재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주민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선한 이웃' 봉사단의 성장 과정은 인스타그램([bu.goodneighbors_23](https://www.instagram.com/bu.goodneighbors_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한 이웃다운 간호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선한 이웃 동아리는 23년도 한 해 동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남창마을에서 건강 측정, 간호진단 설명, 꽃다발 액자 제작, 건강 교육, 꽃부채와 천연 모기탈취제 제작, 구슬 팔찌 만들기, 수박화채 만들기, 근육 마사지, 근육 테이핑, 풍선 배드민턴 등 총 10회차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선한 이웃의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한 해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 12월 22일 전국 30여개 대학교·동아리 팀 중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활동 영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23 자율실습 코칭 프로그램 시상식

14기 학생기자 성예진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는 2023년 2학기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율실습코칭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는 2022년에 처음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4~5명의 그룹을 구성하는 형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그룹은 원하는 교수님과 매칭 되어 자율 실습을 운영하고,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학년 교과목 중 하나인 기본 간호학 및 실습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 실습 과정을 그룹단위로 학습하고

자 하는 목적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직접 실습 계획을 구성하였다. 그렇기에 핵심 술기를 반복 학습하고, 학습 내용을 점검 및 수정, 복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었다. 더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도 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할 수 있었기에 학생들의 핵심 술기 수행과 같은 관련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2월 14일에 **자율실습 코칭 프로그램의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간호학과 채플 시간에 열린 이 시상식을 통하여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핵심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로 자리하는 자율실습 코칭 프로그램에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환자안전경진대회

13기 학생기자 박은진

이번 환자안전경진대회는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의 한 주차를 활용하여 개최되었다.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주요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간호사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의료인으로 환자안전 활동에 큰 책임을 가진다.

이 대회는 3~4명이 한 조가 되어 팀이 구성되었고, 3단계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1단계는 임상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투약에러 예방을 위한 수액주입 계산, 고위험 약물 계산을 포함한 약물용량 QUIZ**, **2단계는 수술 전, 후 대상자의 병실에서 Room of Errors를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단계**, **3단계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으로 점수를 매겨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14일 채플 시간을 통해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간호학과 아침밥을 부탁해 이벤트>

14기 학생기자 도아빈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과 10월 16일 월요일, 간호학과 아침밥을 부탁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아침밥을 부탁해 이벤트는 제3대 간호학과 학생회 Re:bom에서 개최한 이벤트로, 시험 기간인 10월 중순에 백석대 간호학과 학생들을 응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벤트는 각 날마다 50명의 백석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침밥을 제공하였다.

장소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형관 건물의 1층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었다. 뇌를 깨우고 하루의 에너지원이 되는 아침밥이지만, 바쁘고 지친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 이벤트에선 바쁜 학생들이 간단하고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이삭 토스트와 피크닉 음료수를 제공하였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든든한 아침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습 꿀팁 부탁해 이벤트>

14기 학생기자 도아빈



간호학과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처음으로 교외 실습을 나가게 되며, 1000시간 이상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한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실제 임상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은 처음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실습 꿀팁을 부탁해 이벤트는 이러한 실습 현장을 경험할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선배님들의 다양한 실습 꿀팁을 공유하는 이벤트이다. 2023년 11월 6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 총 5일간 진행된 실습 꿀팁을 부탁해 이벤트는 제3대 간호학과 학생회 Re:born의 주최로 이루어진 온라인 이벤트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간호학과 공식 인스타그램 피드에 댓글로 자신만의 실습 꿀팁을 남기는 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한 경품 또한 준비되었는데, 폴리오 종아리 무선마사지기, 카누 캡슐 커피 머신, 오소플 이문 멀티비타민 세 가지를 랜덤으로 1명씩 추첨하여 증정하였다. 이후 12월 19일부터 선배님들의 꿀팁을 정리한 내용들이 처음으로 실습을 나가게 될 3학년 학우들을 위해 간호학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었다. 처음으로 나가는 교외 실습을 앞둔 3학년 학우들은 먼저 경험했던 선배님들의 실습 꿀팁들을 통해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첫 실습에 임할 수 있게 되어 큰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학술제&졸업간담회

13기 학생기자 우리네

백석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8월 24일에 제 14회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제는 4학년 학우들이 참여하였고, 조별 학생들의 논문 중 선정된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질의응답 및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제 이후에는 졸업생들과 재학생들간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을 비롯한 3명의 졸업생들이 다양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팁을 알려주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 학술제에 참여한 4학년 학우들의 논문 포스터를 학부사무실(조형관618호) 앞 복도에 8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전시하며 학술제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과도 공유하였다.

위 학술제에 대해 임소연 간호학과장님께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연구를 수행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을 확인하였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 교류를 촉진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해주셨다. 이번 간호학과 학술제는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열정과 협동으로 논문을 완성하였고, 학생들의 연구역량이 한층 높아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가톨릭대 카데바 해부관찰 실습

13기 학생기자 이예지



해부생리학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해부생리 카데바 관찰 실습'을 1학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 여름방학 6월 19일, 22일, 23일 9시~5시까지 세 차례 걸쳐 서울 가톨릭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연수회비는 15만원으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전액 지원하였으며 교재, 실습용품(가운, 마스크, 장갑) 및 점심 식사가 포함되었다. 실습 1일 50명 이하로 구성되었으며 20명 내외로 1개의 조를 이루어 실시하였다.

이번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인체의 근육과 골격, 내부 장기의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었고, 해부학 총론과 시신기증의 의미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첫째날 19일에는 상지, 하지, 내장기관의 해부실습을 그리고 둘째날 22일에는 구체적으로 상퇴, 하퇴, 내장기관의 해부실습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날 23일에는 뼈대, 상지, 하지, 내장기관의 해부실습을 하였다. 1학년 학생들은 "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장기, 혈관, 신경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하였다.



2학년 간호경진대회 + 최우수상 아이템 소개



14기 학생기자 장윤하

1. 간호경진대회

휴먼케어를 위한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대회이다.
<휴먼케어를 위한 바이오헬스 지식재산 워크숍>을 진행해 [국제특허 추론]의 김진동 변리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특허 창출을 위한 발명 기법과 특허 출원 절차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2. 최우수상 아이템 소개 인터뷰

※ 최우수상 아이템 소개 [천연 염료 스티커를 이용한 주사부위 표시]

Q. 팀명과 팀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조, '앞으로 쪽쪽쪽' 팀, 김가빈, 정예진, 정원철, 정지원, 천나경입니다.

Q. 주제로 '자가 인슐린 투여 환자를 위한 관리 방법'을 선정하셨는데, 이 제품을 발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당 제품은 인슐린 주사 부위 주변을 일시적으로 염색하는 제품으로 가장 핵심 목적은 동일한 부위의 반복적인 주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인슐린 주사의 경우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하면 인슐린의 흡수를 예측할 수 없으며 조직손상이 초래되고 피하지방이 위축되어 피부가 깊게 함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의 균일한 흡수를 위해 이전에 주사를 했던 부위에서 2.5cm 정도 떨어진 부위를 선택하여 주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부위에 다시 주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Q. 해당 제품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해당 제품의 원리는 주사부위를 제외한 주변 부위에 헤나스티커를 통한 일시적인 염색으로 약 3주 후까지 지속되도록 하여 동일한 부위의 주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염색에 헤나를 선택한 이유는 헤나는 침습적인 시술없이 헤나의 '헤노타닉 산'이 피부 각질층의 케라틴과 결합하여 염색이 이루어지며 이후 각질이 탈락되면서 문신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Q. 해당 제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우승을 목표로 대회에 참가했다기보다는 경험을 쌓고 친구들과 무언가를 같이 도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바로 동기들과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물품 기획 아이디어만 생각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간호학이다 보니 처음에는 간호사에게 어떤 물품이 가장 필요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임상경험이 없어 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고, 팀원들과 고민한 끝에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대상자들이 자가 간호 시 무심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 자가 투여 대상자를 위한 주사 부위 표시 스티커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특허 경진대회는 예비 간호사인 제가 대상자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후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 대상자 혹은 동료 입장에 서서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며 일하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허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세세하게 알지 못하여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각자 생각해 온 특허 아이디어들을 나누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며 작성했는데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작은 아이디어가 살을 붙여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팀워크인지 느끼고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을 활용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의미 있는 상품을 만들어낸 '앞으로 쪽쪽쪽' 팀원들,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백성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24 "

발행인
편집주간

임소연 학과장
김현정 교수

회장

박은진 grace0673@naver.com

부회장

장윤하 wkddbsgk1109@naver.com

편집인

김경민 김규림 노규민
노수정 원지유 황현채